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1 “우리도 뛰다”

‘KPGA 군단’ 안방서 유럽 정벌 나서



농협구례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들이 교육원 앞에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기의 농촌 우리가 지킨다
농협인 의지로 끝까지 질주”

■ 농협구례교육원

“3·1절은 외세에 굴하지 않는 조상들의 기개를 보여준 날입니다. 최근 우리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위기는 3·1절 당시와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킨다는 각오로 반드시 완주할 겁니다.”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김보영) 직원과 농협 새내기직원 등 90여명이 제 43회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18일 농촌사랑을 위한 결의를 굳게 다졌다.

이들은 1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김보영)의 ‘신규직원 교육과정’ 중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새내기 직원 등 90여명 출전

특히 전남·북,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 지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시제에 합격한 남자 52명, 여자 32명 등 84명의 새내기 직원들이 맞는 3·1절 마라톤에 대한 각오는 남다르다.

김동연(남·경기도 조암농협)씨는 “나라사랑과 더불어 농촌사랑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된 마음으로 완주하겠다”면서 “비록 5km의 짧은 거리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근영(여·경남 진주시 북부농협)씨는 “평소 운동량이 적어 카라콜함에 들어있는 군부대에서의 유격공수훈련, 극기산악훈련 등을 걱정했는데 마라톤 완주로 마음을 다잡을 생각”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교육생 모두 농촌사랑 전도사”

황은강(남·광주지역본부 비야농협)씨는 “교육동기생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어 너무 즐겁다”면서 “3·1절 마라톤을 모든 참가자들이 완주, 향후 현업에 돌아가서 한명도 낙오없이 농촌과 농협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들 교육생들은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농협 직무교육을 비롯해 극기훈련, 농가 일손돕기 ‘농가체험’, 불우이웃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수료하고 각 지역 농협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생들과 함께 이번 마라톤에 참가하는 박도재 농협구례교육원 교수는 “3·1운동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WTO와 FTA 등에 따른 개방위기와 농촌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 알리기 위해 참가를 결정했다”면서 “교육생 모두가 ‘농촌사랑운동’의 전도사라는 인식을 가슴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영 원장도 “위기에 도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 모두가 완주해 농협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유럽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 내달 13일 제주 개막
최경주·양용은·위창수·김경태 등 총 31명 출전

다음 달 13일부터 나흘간 제주 핀코스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가 무려 31명이나 출전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KPGA 소속 선수 25명에게 출전권을 부여했던 대회 조직위원회는 일본을 주무대로 삼고 있는 허석호(35)와 올해 KPGA 투어 프로 자격을 딴 신인 김영규(23) 등 2명을 초청 선수

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2승,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6승을 올렸고 2006년 브리티시오픈에서 11위를 차지한 허석호는 특히 지난해부터 진로 발렌타인스의 후원을 받고 있다.

프로무대 데뷔전을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치르게 된 김영규는 KPGA 켈리파인스클에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출전권 1장을 놓고 켈리파인스클 상위

입상자 4명이 겨룬 이벤트 대회에서 우승, 행운을 잡았다.

대회조직위는 앞서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권을 갖고 있는 최경주(38·나이키골프),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 그리고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등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한국인 선수 4명을 초청했다.

KPGA 소속 선수는 지난해 삼금 랭킹 순으로 출전권이 부여됐다.

삼금왕 김경태(22·신한은행)를 비롯해 공동 다승왕에 오른 삼금 2위 강경남(25·삼화저축은행)과 삼금3위 김경태(31·테일러메이드)와 배상문(23·켈리웨이), 김창윤(25·힐라코리아) 등 상위 랭커들은 모두 출전한다.



선수야? 치어리더야?

2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A 토너먼트 테니스대회 여자부 단식 두번째 날 덴마크의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프랑스 마리옹 바르틀리의 샷을 받아 넘기고 있다. 보즈니아키가 2-0으로 승리했다.

2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A 토너먼트 테니스대회 여자부 단식 두번째 날 덴마크의 캐롤라인 보즈니아키가 프랑스 마리옹 바르틀리의 샷을 받아 넘기고 있다. 보즈니아키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출범 88년만에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탄생

대한체육회 출범 88년만에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체육회는 20일 공식종인 사무총장에 구안숙(53·시진) 전 국민은행 프라이빗뱅크 부행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1920년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의 전신)가 출범한 이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여성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최초의 여성 선수총장인 이에라사 총장에 이어 사무총장에도 여성이 발탁돼 ‘여성 쌍두마차’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맞이하게 됐다.



21일(목)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우리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 (SK : 동부)(18 : 50·XSPORTS·SBS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 : 상무)(18 : 30·KBS N SPORTS)

▲동아시아축구 여자부(대한민국 : 일본)(18 : 00), <중국 : 북한>(20 : 30·MBC ESPN)

22일(금)

▲WGC 액션투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2강전 (04 : 00·SBS골프·SBS스포츠)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various local businesses including legal services, real estat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ddresses for each business.